



제목	신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에 관한 소고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성서고고학회
발행일	2008. 11. 30.
저자	이종근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8-40
ISBN 또는 ISSN	1226-4113

**내용 요약**

이 논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와 관련된 고대근동학의 학문적 성과를 고찰하여 7세기 이후 성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보니두스의 신원 및 바벨론 제국의 배경과 멸망 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저자는 나보니두스의 삶을 두드러지게 규정하는 두 가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막강한 신 마르둑과 마르둑의 제사장 그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란의 만신전 주신인 월신 신을 최고신으로 하는 제의에 헌신했다. 둘째, 나보니두스는 북부 아라비아 지역의 테마에서 10년간 체류했다.

저자는 고대근동학의 학문적 연구결과를 고찰하여 나보니두스에 대해 다음과 정리한다. 나보니두스는 하란 영주의 아들이었으나, 월신 신전의 여대사제인 그의 어머니 아다 드-굽피가 느브갓네살이 하란을 정복할 때 포로로 후처가 되면서 어머니의 신분변화에 따라 느브갓네살의 양아들이 되고 후에 사위가 된다. 바벨론 궁정에서 학식을 연마하고 총애를 받은 그는 바벨론 정치에 참여하고 후에 바벨론의 왕이 되지만,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국의 통치를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북부 아라비아의 테마로 가서 10년간 머문다. 저자는 나보니두스가 테마에서 장기 체류한 이유는 월신 숭배로 인한 바벨론의 마르둑 사제들과의 갈등, 무역로 장악을 통한 제국의 경제적 안정 도모, 그 지역의 인종적 및 종교적 선호도 때문이라고 본다. 나보니두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월신 신앙에 영향을 받아 월신 숭배와 그 제의를 우선시하는 종교 편향 정책과 장기간 바벨론의 신년 축제 불참 등으로 인해 바벨론과 주변 도시들의 기득권 세력인 마르둑 제사장 그룹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나보니두스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합하여 페르시아의 키루스를 새로운 지배자로 받아들이면서 나보니두스는 왕위에서 쫓겨난다.